

#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출범... 인니 거주 경남 도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고향인 발전을 위해 힘 보태기로

## 한·인니 정상, CEPA 11월 타결 기대 ... 新남방정책 파트너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자동차 분야 등에서 韓 기업 인니 진출 논의  
文대통령 “방산협력 원만히 추진되길” 조코위 대통령 “우호관계 도약 노력”



▲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G20 정상회담 장인 인텍스 오사카 내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자동차 분야 등에서 韓 기업 인니 진출 논의

文대통령 “방산협력 원만히 추진되길” 조코위 대통령 “우호관계 도약 노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 협의 중

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올해 11월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유제품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도 올해 4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이 증진되고

세계한인재단(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은 10월 5일에 개최할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조직확산과 발전을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에 교류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매년 10월 5일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The Korean Day)은 2007년 5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이다.

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이 최상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대화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유제품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도 올해 4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도 원만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5년간의 재집권 기간에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한 단

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세계한인재단 인도, 인도네시아 교류회장 임명

세계한인재단(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은 10월 5일에 개최할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조직확산과 발전을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에 교류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매년 10월 5일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The Korean Day)은 2007년 5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이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을 주도했던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 박사는 세계한인의 날 제정에 대해 “미국 이민의 공식 출발은 1903년 1월 13일에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날인데이날을 미국 국가기념일로 결의하여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제정하여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기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기념일로 세

계한인의 날 제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한인재단은 10일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해담채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한인재단 인도교류협회 회장에 유인호 교수와 인도네시아 교류협회 회장에 한성균 대표를 각각 두 나라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세계한인재단 아시아 향우회 연합 강장욱 회장의 추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 세계한인재단 한성균 인도네시아 교류회장 임명(김한정 기자)

나라의 교류협회 회장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한성균 인도네시아 교류협회 회장은 삼성SDS 본부장, 주식회사 루맥스 대표, 주식회사 유림 사업총괄 본부장이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 “무역분쟁에 中 기업도 동남아 진출 가속화 ... 韓 기업, 더 뛰어야”

## 아세안 대표부 ‘팀 코리아’ 포럼...20여명 한자리 임성남 대사 “개별국뿐만 아닌 아세안 큰 틀로 봐야”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기 전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덕규 코트라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차장은 17일 “무역분쟁으로 중국기업도 동남아시아로 나올 판”이라며 “한국도 아세안에서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 차장은 이날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셰라톤호텔에서 개최한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에서 신남방 시장진출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복 차장은 “그동안 동남아 개발이 부진했던 것은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축 문제였는데,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 투입이 이뤄져 아세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소비시장의 특징으로 ▲ 젊은 소비층 ▲ 도시형 소비문화 ▲ 할랄 등 종교적 소비패턴 ▲ 유통채널 확산 ▲ 여성과 유·아동 제품 소비 증가 ▲ 글로벌 트렌드 가속화를 꼽았다.

복 차장은 “한류는 이미 성장을 할 대로 해서 한계점에 도달했기에 더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난 3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한류에 할랄을 결합한 개념을 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 국가에서 온라인·홈쇼핑·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이 확산하고 있기에 한국 기업들도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라며 “중국기업들이 더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이재호 전문연구원은 “아세안 국가 간에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 공급의 분절화 및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자카르타=연합뉴스]

이 연구원은 “아세안 전체를 보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것을 아세안에 맞고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포럼을 주관한 임성남 주 아세안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아세안이라는 더 큰 틀과 맥락 속에서 양국 관계를 심도 있게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이슈를 개별국이 아닌 전체의 틀로 바라보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그러한 시류와 맥락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안창섭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배응식 세계한인무역협회 인니지회장, 장은석 지상사협의 회 회장을 비롯해 한인 경제인과 공공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인니협력센터 출범

### 두 번째로 자카르타에 설치...” 韓 기업 해외수주 지원”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한·인도네시아 인니협력센터를 가동했다.

KIND 한·인니협력센터는 18일 오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풀만호텔에서 개소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김진남 KIND 한·인니협력센터 지사장은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한국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니협력센터는 양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특별한 이유나 이슈가 없더라도 편하게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모하마드 국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LRT(경전철), 도로, 수자원 등 인프라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한-인니 인프라협력센터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민관협력사업(PPP)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조정부의 바스파리 국장은 “인프라 구축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라며 “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양국 간에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2017년 10월 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KIND는 한국의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기획, 타당성 조사, 현지국 정부와 교류확대 등을 수행한다.

KIND는 지난 4월 문을 연 우즈베키스탄 협력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인니협력센터를 개소했다.

KIND는 다음달에는 베트남과 케냐에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 아마존웹서비스, 까라왕에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미국 아마존 산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루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1조 루피아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까라왕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부자바주 리드완 주지사는 “아마존은 까라왕군을 포함한 3곳의 후보지를 제시했다. 정확한 위치와 건설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AWS는 지난해 3월 자카르타에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했다. 향후 10년간 인도네시아에 14조 루피아를 투자할 계획이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 글로벌 투자자들, 인도네시아에 눈길... 신용등급 상향 호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인도네시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닷케이아시안리뷰가 16일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가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구조개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총재는 한 현지 매체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국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9조1천억 루피아(약 7천553억 원)에 이른다고 하며, 자금 유입세가 "호조(good)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르자 부총재는 유입된 자금의 약 80%가 인도네시아 정부채에 투자됐다고 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유출에 시달렸다. 국제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루피아 가치는 한때 약 10% 하락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현재는 추세가 뒤바뀌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2014년 10월 조코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규제개혁,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등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20위에서 작년 73위로 훌쩍 뛰었다.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면서 개혁 작업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안정하지만 아시아가 발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인 인도네시아의 미·중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대규모 붕괴로 높이 5m 쓰나미를 유발했던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화산섬에서 이틀 사이 5차례 분출이 일어났다.

26일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에서 5차례 분출이 있었지만, 쓰나미 등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재난당국은 분화구에 설치한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분출 영상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25일 오전 9시 9분(현지시간)에 촬영된 영상이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이번 분출은 규모가 작아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의 경보단계(1~4단계)



▲ 6월 25일 CCTV에 찍힌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 분출인스타그램 @krakatau\_ca\_cal

##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 이틀 새 5차례 분출 작년 12월 순다해협 5m 쓰나미 발생시켰던 화산

는 2단계이고, 분화구 주변 2km 이내 접근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2일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의 남서쪽 경사면이 붕괴하면서 해저 산사태와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기업이 온라인 차량호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 기업들이 요금을 할인하거나 프로모션 요금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3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온라인 차량 호출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고젝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으로, 두 업체 모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금을 쏟아 붓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체들 간 출혈경쟁이 끝나고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항공시장처럼 소비자가 가격결정권을 가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부 도로교통과의 아흐맛 야니 국장은 지난 10일 "우리는 그들 중 어느 업체도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업체가 건전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온라인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들이 하한가보다 낮은 할인요금을 제시하는 프로모션을 이달 말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의 플루스 아바디 회장은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유지하기 어려운 요금으로 인해 결국에는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센터(CORE Indonesia)의 설립자이자 경제전문가인 헨드리 사빠리니 씨는 정부가 대중교통을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호출 오토바이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개인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는 가장 안전하지 못한 교통수단이다. 선진국에서는 오토바이 이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 심지어는 자동차운전면허보다 오토바이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운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BS 476 Fire Test "CLASS 0"

##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 신남방 정책의 중심 인도네시아에 ‘경남도민회’ 출범

## 재인니 경남도민회 창립총회 마치고 회장 등 임직원 선출 마무리 인니 거주 경남 도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고향인 발전을 위해 힘 보태기로



▲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회기를 배상경 고문으로부터 받고있는 김주철 초대회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의 중심 지역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

고 있는 경남 출신 향우인들로 구성된 ‘재인니 경남도민회’가 결성되었다. 지난 6.29.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마포아 골프장에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주재원 등 100여명이 모여 ‘재인니 경남도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친선 골프대회를 하고 저녁 6시부터는 도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경남도민회를 이끌어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회칙제정과 나머지 고문과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도민회 조직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철도공단, 국내기업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동렬(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해외사업본부장이 인도네시아 PPP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공동으로 민관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등 철도사업 관련 7개 정부기관의 주요인사 20여명이 직접 참석해 발주 예정 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질의응답, 개별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의 소통에 나섰다. 철도공단은 이번 설명회가 국내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발주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 진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5.8km) 수주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국내 민간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수주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PPP 철도사업 설명회가 우수한 국내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인니 경남도민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은 하동출신으로 재인니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재인니 하동향우회장을 역임한 김주철 스타컴텍스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이어서 고문은 고성 출신 배상경 대표 등 2명, 부회장으로 의령 출신 전민식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 5명을 선출하고 이어서 감사와 사무총장 등 11명이 선출되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축전을 보내 ‘도민회 창립을 축하하며 고향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였고’, 행사 후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경남지역의 유명 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고향의 우수한 농식품을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주철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초대 김주철회장

통해 ‘재인니 경남도민회’가 정식 출범하므로 앞으로 재인니 경남 향우들의 단합과 고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는 지난2월에 땅그랑 모든랜드cc에서 70여명의 경남도민과 임시모임을 갖고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창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이날 창립하게 되었다.

## 자카르타, 스피아부디아 거리 2020년말까지 봉쇄 원활한 경전철 공사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정부는 17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남부 자카르타 스피아부디 뚝아 거리를 봉쇄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경전철(LRT)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현지 언론 콤포스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교통국의 시긱 국장은 “따나아방 지역에서 라수나사이드 거리로 향하는 경우 마르고노 조요꾸수모-갈룽궁-수디르만-스피아부다 라야-스피아부다3 거리를 지나는 노선을 대체 도로로 이용하기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라수나사이드 거리에서 따나아방 지역과 수디르만 거리로 향하는 경우에도 라수나사이드-HOS 쪼끄료아미노또-수므늬-갈룽궁-마르고노 조요꾸수모 거리 또는 북쪽으로 스피아부디 우따라-따만 스피아부디2-스피아부디 라야-수디르만 거리를 대체 도로로 제안됐다.

###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국가개발계획청, “수도 이전 대상지로 東갈리만만 유력”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바뻬나스, Bappenas)의 밤방 청장은 16일, 수도 이전 대상지로 갈리만만 섬이 거의 결정됨을 밝혔다.

이전 대상은 술라웨시도 또한 후보로 거론됐다. 현재 동부 갈리만만 주를 유력 후보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 드뻍닷컴이 18일 보도했다.

밤방 청장은 동부 갈리만만 주에 대해 “육해공 교통, 에너지, 상수도 등의 인프라망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지진 등의 자연재해도 적다”고 평가하며 “이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수가 발생하기 쉽고, 물 자원이 적은 것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중부 갈리만만 주에 대해서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 재해

가 적은 것과, 국경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위험이 적은 것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항만에서 떨어져 있음과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밤방 청장은 수도 이전 비용에 대해 466조 루피아로 추산했지만 도시의 규모가 계획보다 작을 경우 이를 323조 루피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메이카르따 사업, 제1기 공사 2021년에 완공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기업 리보 까라와찌(PT Lippo Karawaci)는 서부자바주 브카시 짜카랑 대형 도시 개발 사업 ‘메이카르따’ 제1기 공사를 2020년 4분기 또는 2021년 1분기 안에 끝낼 목표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보 까라와찌는 메이카르따 사업에 총 2,200헥타르를 개발한다. 제1기는 28헥타르 부지에 56동 2만 2,500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8월에는 이 가운데 4동을 완공한다.

메이카르따 사업을 둘러싸고 브카시의 느넝 하사나 야신 군수와 리보 그룹의 빌리 신도로 전 이사가 뇌물 공여



죄로 금고 3년 6개월, 벌금 1억 루피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보 까라와찌의 존 리아디 최고 경영자(CEO)는 “최근 발생한 부패사건으로 그룹 이미지가 손상되고 매출에도 영향을 줬지만, 메이카르따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표명했다. 이 회사는 메이카르따를 포함한 사업 비용 등으로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11조 2,400억 루피아 상당은 신주예약권 무상 할당(라이즈이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이미 금융감독청(OJK)에서 승인을 받았다.

##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6%로 동결 지준율은 인하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6%로 동결했다.

20일 다우존스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날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7일짜리 역레포 금리를 종전대로 6%로 결정했다. BI는 작년 11월 금리를 25bp 인상한 후 7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BI는 글로벌 금융 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6%로 0.5% 포인트, 샤리아은행(이슬람을 법에 의한 은행)에 대한 지준



율을 4.5%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오후 4시 54분 기준 달러-루피아 환율은 뉴욕 전장 대비 0.37% 하락한 14,210루피아를 기록 중이다. 달러-루피아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는 오른다.



##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인니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 “광주에 연대 표시”

## 인니 반공 대학살 피해자·유가족으로 구성된 ‘디알리타 합창단’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 광주서 노래 듣자마자 느낌이 왔다”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듣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그 뒤로 유튜브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 디알리타 합창단(Dialiata Choir)의 우치코와티 파우지아(67) 단장은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대사관에서 공연하기 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디알리타 합창단은 1965~1966년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피해 여성과 희생자 가족이 2011년 결성한 여성 합창단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유족을 돕기 위해 기부금 마련 차원에서 노래하다가, 점차 이름을 알리면서 감옥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무대 위로 올렸다.

파우지아 단장은 디알리타 합창단을 대표해 지난달 광주를 방문,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 특별상을 받았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란 노래를 광주에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가사는 모르지만,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광주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연대의식을 보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서 공연하는 디알리타 합창단 [자카르타=연합뉴스]

여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연습했다”고 말했다.

디알리타 합창단원 22명 중 16명이 이날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 기념’ 행사에 참석, ‘희망의 인사’라는 노래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국어로 불렀다.

파우지아 단장은 “광주를 떠나기 전 한국분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약속했다”며 “영어 가사

를 보고 이 노래의 가사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가보니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인권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분들은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은 군부가 공산주의자 등으로 간주한 민간인 50만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으로, 20세기 최악의 대학살 중 하나로 꼽힌다.

합창단 단원인 우타티(75) 할머니의 경우 ‘민족 청년’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하다 21세에 투옥돼 11년을 보냈다. 우타티 할머니는 “갑자기 집에 군인이 와서 사흘만 조사하면 된다더니 11년 동안 풀려나지 못했다”며 “감옥이라는 말조차 무서워 우리끼리는 ‘기속

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 안에서 죽지 않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며 “연필도 없어서 솥으로 빵 붓지나 벽에 가사를 쓰면서 그렇게 견뎠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파우지아 단장의 경우 어머니는 7년간, 아버지는 15년간 각각 투옥생활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 생활했다.

파우지아 단장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에서 발간한 백서에는 5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정부가 아직 이 사건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리 합창단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찾아보길 바란다”며 “우리는 노래를 통해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창범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를 향한 힘든 여정을 걸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강인한 여성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다”며 합창단에게 박수를 보냈다.

## 사진으로 만나는 ‘찌아찌아 한글학교’

### 印尼 부족 ‘한글쌤’ 정덕영 작가 19일부터 인사동서 사진전 개최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는 7,000여 종에 달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절반 가량이 100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세계 사멸언어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2주에 하나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언어가 사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부탄섬 바우바우시에 살고 있는 약 7만여 찌아찌아족이 사용하는 고유어인 찌아찌아어가 그렇다. 언어를 표기할 고유 문자가 없어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지 못하고, 머잖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글 선생님’ 정덕영이 처음 찌아찌아족 마을에 파견돼 현지에서 직접 한글



▲ 까르야 학생이 교실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을 가르쳤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두루 적을 수 있어 무문자 언어를 가진 부족에게 유용했다. 그간 다른 언어에 대한 한글교육이 중도 포기로 끝났지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만은 10년 동안 꾸준히 성과를 이어왔다.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가 인도네시아 소수 부족인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게 한글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됐다. 이를 기념하는 사진전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학교’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사진작가는 정덕영이다. 그는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학교 이야기’ (서해문집 펴냄)의 저자이기도 하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한글 공부 모습은 즐거우면서도 진지하다. 그들의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은 물론 찌아찌아 마을의 따뜻한 생활상도 만날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부탄 섬 곳곳에서 만나는 한글 표지판이다. 한글 벽화가 그려진 ‘한국마을’도 조성되고 학생들은 한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른다. 틈틈이 찍었을 이국적 풍경이 무척 가깝게 다가온다.

정 작가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글 선생으로 나선 환경에서 풍토병에 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생활한다”면서 “



▲ 한글교사 정덕영(왼쪽)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찌아찌아부족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학생과 주민들과의 끈끈한 우정과 특별한 경험들을 사진에 담았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훈민정음학회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와 한글사용 및 한글교사 양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듬해 현지 인도네시아 교사를 통한 한글교육이 시도됐고 2010년 1월에 지금의 한글교사 정덕영 선생이 현지로 파견됐다. 한글나눔 교육은 1년 만에 중단돼 정 선생이 귀국했고, 2012년 1월에 세종학당이 설립됐으나 7개월 만에 폐쇄되는 등 위기가 있었다. 2013년 10월에 민간단체 ‘한국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가 설립되면서 2014년 4월부터 한글나눔이 극적으로 재개됐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바우바우시 외에도 바따우가 군에서도 한글교육을 요청해 찌아찌아족 한글나눔은 2개 행정구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초등학교 3곳과 고등학교 2곳 및 고아원에서 14개 학급 430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으며 현지인에 대한 한글교사 양성과정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인디아나주는 의외로 천동 번개가 많은 곳이다.

며칠 전 TV에서 뉴스 시간에 벼락을 맞아 전소된 어느 교회 예배당을 보았다. 교회가 벼락을 맞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였다. 교회나 예배당이나 같은 것 아닌가? 천만엔. 전혀 다르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가 꼭해

보니 상당한 믿음이 있는 분 같아 “집사님이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아주 죄송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성도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일 뿐이라니! 성도, 곧 ‘거룩한 사람’ (saints)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아무 직분도 갖지 않은 교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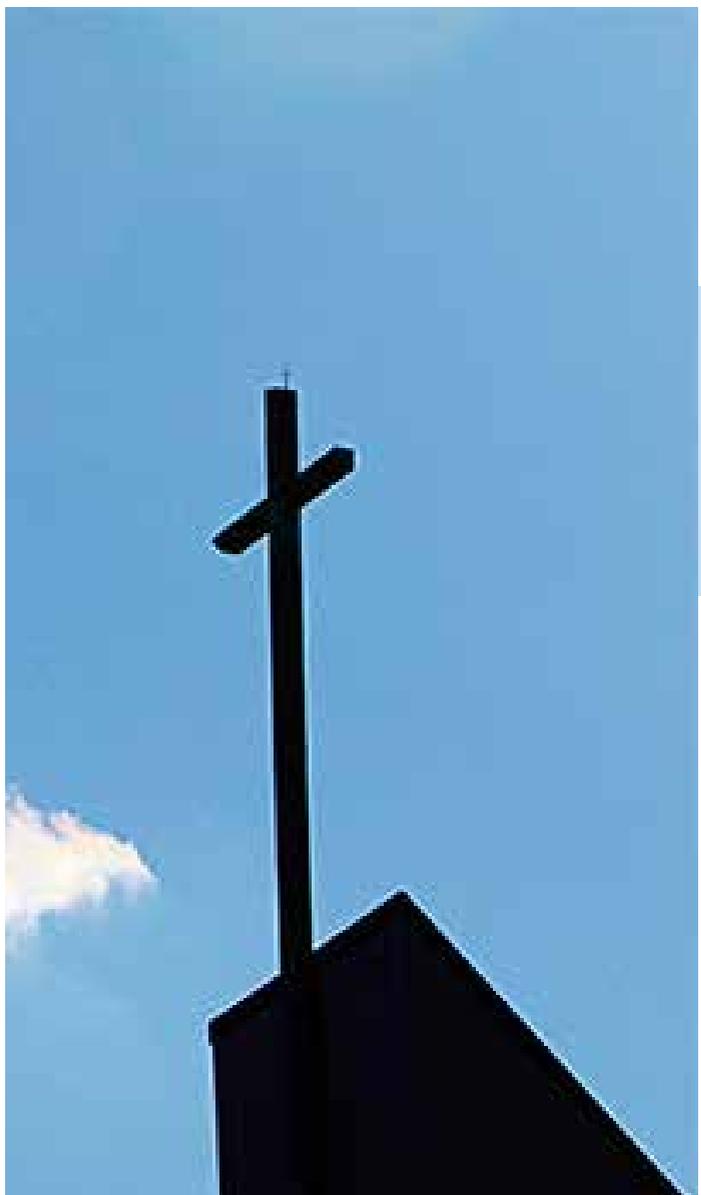
수십, 수백억 들어 건축한 화려한 예배당에 거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전을 건축하라고 했더냐?” (삼하7:5-7).

언젠가 극동방송을 통해 부산의 어느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기들 집은 잘 짓고 살면서 성전 건축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었다. 기업이나 방송사 사옥의 화려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

였다. 화려하고 육중한 대리석 기둥과 바닥, 유명화가의 천정화, 벽화들, 예수님과 마리아, 성자들의 조각, 금물로 치장한 침탑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주눅 들게 만들었던 중세교회의 타락에 가슴이 아팠을 뿐이다.



되고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교회, 성전, 예배당에 대한 혼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called to be saints)’을 말한다(고전1:2). 교회를 일컫는 헬리어, 에클레시아(ekklesia)도 ‘부르심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교인들 숫자나 소속 교단, 번듯한 건물의 유무 따위가 교회의 조건이 아니다. 거듭난 성도, 곧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고전12:13).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도 않고(롬8:9) 교회(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다. 언젠가 어느 분이 내게 전화로 신앙상담을 해왔다. 들어

를 사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성경의 기초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부분)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나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다 높고 다 존귀하다(고전12:14-26).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것이 무슨 계급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은사를 따라 부여되는 역할일 뿐이다. 성경을 읽어 보고 읽어 보고 읽어 보라. 성경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교회 안에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를. 교회에서 유일하게 높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뿐이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聖) 집(殿)’ 이 곧 성전이다. 그러면 오늘 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 교회? 성전? 예배당? 단순한 진리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3:16,17)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6:19, 20).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 이를 신성시한 나머지 성전(?) 건축에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집(예배당)일뿐이다. 예배당은 도적도 들고 벼락도 맞고 불도 날 수 있다.

구약 족장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언약궤 위에, 출애굽 당시에는 장막 성전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지성소에 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이은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행2:17, 18, 38, 39).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개탄했는데(고후3:12-18) 그로부터 이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말인가?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 성전(건물)을 잘 지어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더라 말인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너희들더러 나를 위하여 좋은

님의 성전은 이 보다 훨씬 잘 지어야 한다. 유럽의 웅장한 성당을 거론하면서 유럽이 잘 살고 복(?)받은 것을 성전(?) 건축을 잘한 덕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어느 교회가 크고 좋은 예배당을 신축,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예배당을 짝 떤 성도들 앞에서 모 신학대학 총장님이 축사를 하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신학대학 총장님조차 예배당과 성전을 혼동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케 해야 할 것은 성전 된 우리들의 몸이 아니던가.

우리는 왜 교회에서 어린 소자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형제가 주님 영접 이후 즐기던 담배를 완전히 끊고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간증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안 이상, 어떻게 성전을 무익하고 매캐한 연기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성전을 올바르게 이해한 성도라면 자신의 육체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유럽여행 중에 유명하다는 성당을 몇 군데 둘러보

주일 한 때, 평일 새벽기도회 잠깐 사용하자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짓는 단 말인가. 그럴 바에야 서울의 어느 개인 교회들처럼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또한 기왕에 예배당을 잘 지었다면 선교와 교육, 봉사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주에는 강동교회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디옥 교회가 있다. 콘서트 막사라 불리는 함석간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는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쓰고 있다고 들었다. 수십, 수백억 들여 예배당을 짓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느라고 교회 예산 쏟아부으며 일 주일에 불과 몇 시간 사용하고 마는 교회와 강동교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인정하시겠는가?

얼마 전, 현재 섬기고 있는 인디애나 블루밍턴 감리교회의 대학부(모두가 유학생들)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교회, 성전, 예배당. 도대체 이 간단명료한 진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중세의 무지했던 시대와 21세기인 지금,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 CJ, '1촌 1품' 인니 2개 마을조합 체결 ... 커피·초콜릿 활용

## 'One Village One Product' 로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인도네시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1촌 1품' (OVOP, One Village One Product)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CJ그룹은 27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FX수디르만 호텔에서 행사를 열고 동부자바 블리따르(Blitar) 지역 구웁 산토소(Guyub Santoso) 초콜릿 조합, 중부자바 스마랑 지역

따니 마농갈(Tani Manunggal) 커피 조합과 '1촌 1품' 협약을 맺었다.

'1촌 1품'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업으로, 코트라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2015년부터 추진

2015~2018년 1차 3개년

사업에는 삼성전자가 2개 마을, CJ·롯데·KEB하나은행이 각각 1개 마을과 협업했다.

2019~2022년 2차 사업에는 우리은행과 중부발전이 앞서 참여를 확정된 뒤 각각 2개, 1개 마을조합과 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CJ인도네시아가 협약식을 열었다.

CJ인도네시아는 1차 사업에서 옥야카르타의 꾸론 프로고(Kulon Progo) 마을조합과 손잡고 이 조합에서 생산한 코코넛 설탕을 고정 매입해 푸레쥬르 빵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또, 코코넛 설탕의 품질관리와 향상, 포장기술, 판로개척을 도와줬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은 1천400명이다.

CJ인도네시아가 이번 2차 사업에서 손잡는 마을조합은 각각 커피와 초콜릿을 생산한다.

CJ인도네시아는 "협동조합의 커피 품질 개선과 판매 경로 확대를 지원하고, 초콜릿 활용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인도네시아는 조합에서 사들인 초콜릿으로 '초콜릿 시폰 케이크'를 생산해 반둥, 수라바야, 발리 등 매장에서 판매하고, 커피는 인니 전체 푸레쥬르와 CGV 매장에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빅토리아 인도네시아 증기부 차관은 "초콜릿과 커피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진 제품"이라며 "지속적인 협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지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어아시아, 8월 인니 5개 국내선 새롭게 취항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LCC) 에어아시아(Airasia)는 24일, 8월부터 인도네시아 5개 국내선이 새로 취항한다고 밝혔다. 서부 누사똥가라주 롬복과 발리 등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강화한다.

현지 언론 콤포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롬복-자카르타와 롬복-발리, 롬복-족자카

르타, 동부 누사똥가라주 라부안 바조-발리, 서부자바주 마잘렝카군의 끄르따자띠 국제공항-동부자바주 수라바야 등 5개 노선이 직항으로 연결된다.

6월 30일까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출발 날짜가 8월 1일~10월 26일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자카르타-롬복 노선의 편도 요금은 최저 63만 5000루피아, 발리-롬복은 최저로 편도 24만 3,000루피아, 수라바야-마잘렝카 노선은 62만 6,000루피아에 판매된다.

## 그랩, 스타트업 지원 10개사 발표...인니 기업 7개사 포함



싱가포르의 차량호출·공유서비스 업체 그랩(Grab)이 17일, 신흥기업 액셀레이터(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그랩 벤처 벨로시티(Grab Ventures Velocity, 이하 GVV) 제2기 사업과 관련,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원 대상 기업 10개사를 발표했다. 10개사 중 인도네시아 기업이 7개사 선정됐다.

제2기 사업에서는 농촌과 중소기업 영세 기업을 지원하는 신흥기업 각각 5개사가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7개 기업은 농가 지원 업체 '에라가노(Eragano)',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관련 여행사이트 '쁘르기움로(PergiUmroh)', 배송 서비스 '포터(Porter)', 농작물 직판 사이트 '사유르박스(Sayurbox)'와 '따니 허브(Tanihub)', 보험 판매 사이트 '코알라(Qoala)' 등이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기업 2개사와 말레이시아 기업 1개사가 선정됐다.

그랩 인도네시아(PT Grab Indonesia)의 리즈키 사장은 선정된 10개사는 음식 배

달 서비스 '그랩 푸드'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쿠도(Kudo)'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범운용을 16주간 실시한다.

###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망그랑 리브 까라와치 루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 사진출처 : 코하이브

미화 1천 35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첫 번째 클로징

인도네시아 최대의 코워킹스페이스 코하이브(CoHive)가 브랜드 공식 출범 행사를 가졌다. EV Hive에서 CoHive로 리브랜딩 이후 단순 코워킹스페이스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코하이브는 지난 19일에 대대적인 출범 행사 'Transformation 4.0' 을 개최하고, CoWorking, CoLiving, CoRetail 및 CoHive Event Space 등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자카르타 메가 꾸닝안에 위치한 코하이브 본사 건물인 코하이브 101의 개장을 알리기도 했다. 18층 규모의 코하이브 101은 열린 코워킹스페이스, 개인 사무실 및 회의실을 통해 최대 2,700명의 회원을 수용할 수 있다.

코하이브 공동 설립자 겸 CEO 제이슨 리는 코하이브 101이 인도네시아 내 마켓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본 건물을 통해 코하이브는 고층 건물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코워킹스페이스 기업이 됐다" 고 말했다.

이어 제이슨 리 대표는 "코하이브 101을 통해 통합적인 에코시스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하이브는 자카르타 서부 Tower Crest West Vista에서 Keppel Land Indonesia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 중인 자사의 첫 CoLiving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총면적 2,800㎡ 내 64개 숙소를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에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회원들이 마음이 맞는 이웃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공유 공간을 통해 협력을 양성하는 주거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코하이브는 CoRetail을 통해 저렴하고 유연한 소매 공간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원들은 소매 공간에서 신제품을 선보이고, 코하이브 내 대규모 커뮤니티를 공략할 수 있다. 코하이브 101의 1층에 위치한 첫 번째 CoRetail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공동 이벤트를 통해 모이고, 한자리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또 코하이브는 다양한 모임과 기업 행사를 열어야 하는 회

원들의 수요를 충족할 행사 공간도 선보였다.

한편, 코하이브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Stonebridge Ventures ("스톤브릿지 벤처스")의 주도로 미화 1천350만 달러 규모

## 인니 최대 코워킹스페이스 코하이브 브랜드와 신상품 출시

### 미화 1천 35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첫 번째 클로징

의 시리즈 B 첫 번째 클로징을 마무리하였다. 스톤브릿지 벤처스의 포춘 손 이사(한글명 "손호준")에 따르면, 본 투자로 코하이브가 시장 1위라는 입지를 강화하고, 단순한 코워킹스페이스를 넘어 인도네시아 최대의 커뮤니티 구축 기업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밝혔다.

손호준 이사는 "코하이브는 인도네시아 최대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업체" 이고 "CoHive의 창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

에 유연하고 높은 퀄리티의 업무 공간을 지원하고, 건물 이용률을 배로 높임으로써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로는 스톤브릿지 벤처스 외에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스타셋인베스트먼트, 인도네시아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그리고 H&CK Partners 등 기존 투자자들이 있다. 코하이브는 이번에 유치한

신규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카르타를 비롯해 수라바야, 반둥 및 마카사르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코하이브는 자카르타, 메단, 족자카르타, 발리 등 네 개 도시의 31개 장소에서 거의 65,000㎡ 면적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달 이상 공간을 임대하는 코하이브의 회원 수는 약 9,000명에 달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2019 World-OKTA 자카르타

##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 강사진

**이희경 회장** (프라이م 로지스틱 사장 / 코원 회장)  
**김은미 대표** (CEO SUITE 대표)  
**손동근 이사** (SK ENERGY INDONESIA 이사)  
**이강현 부사장** (삼성 인도네시아 부사장 / 옥타 수석부회장)  
**코트라 강사**  
**And MORE !!**

### 행사개요

기간: 2019 7월 19일 - 2019 7월 21일  
 장소: Century Park Hotel Senayan  
 인원: 50명 제한  
 대상:
 

- 한국어 의사소통 및 수강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재외동포 청년
- 재외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 무역인
- 한국상품 무역에 관심이 많고 해외수출판로 개척할 수 있는 차세대 무역인

 비용: Rp. 1,000,000 - 행사 당일 지불 (숙식/교재/회비 및 8월 10-11일 워크샵 비용 포함)  
 신청: <http://oktaindonesia.dubupius.com>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문의  
 마감: 2019년 7월 12일 17시  
 문의: [oktajakarta@gmail.com](mailto:oktajakarta@gmail.com)

### 무역스쿨 수료 혜택

- 전세계 144개지회, 6,500여명의 월드옥타 정회원과 15,000여명의 차세대 수료생들과의 네트워크
- 글로벌 마케터 참여기회 부여
- 창업자문 및 라이징스타 참여기회 부여
-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차세대 무역스쿨 오국방문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 인도네시아 차세대 위원회 가입 가능
- 대한민국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천
- 12기 수료생 영티/워크샵 참가비 무료 (2019년 8월 10-11일 예정)

주최 : World - OKTA Indonesia  
 주관 : World -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indonesia  
 세계한인무역협회

#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이상 내야

유학생은 월5만6천원 부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

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 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

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크다. 지금보다 건보료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인편의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허가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

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 APRO 서비스 그룹, 인도네시아 은행 합병 승인 취득

APRO 서비스 그룹은 2개의 인도네시아 은행의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으로부터 취득했다.

APRO 서비스 그룹은 2019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으로부터 오케이와 디나르 은행간 합병 법률 승인을 취득했다.

APRO 서비스 그룹은 2018년 10월 2일에 디나르 은행을 인수하고 2018년 12월에 은행합병초안을 제출했다. OJK에 합병 요청서는 두 은행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후 3월에 제출됐고, 정확히 3개월 후인 6월 25일에 OJK로부터 두 은행을 합병하기위한 공식 승인을 받았다.

합병회사의 모회사인 APRO 서비스 그룹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은행을 설립한 4번째 금융기관이다.특

히 APRO 서비스 그룹은 비은행 금융회사이면서 해외에서 유일하게 은행업을 영위하는 최초의 금융기관이 되었다. APRO 서비스 그룹은 OK저축은행, OK캐피탈, 러시앤캐시 등과 같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전문 회사이다.

이번 합병은 APRO 그룹이 PT. Bank Dinar Indonesia, Tbk 및 PT Bank Oke Indonesia의 대주주로서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으로 유망한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금융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와 확신을 의미한다.

임철진 합병은행장 겸 주인니 한국 금융협회 회장 “한국 시장의 예대마진은 2%가 안되고, 이미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곳이 많지 않다”며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성장 잠재력이 있어서 은행



▲ OK Bank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본점 내부 (사진=OK Bank 인도네시아 제공)

이용률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합병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합병 프로세스 완료 이후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बैं킹 제품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케이은행은 두개 은행 합병을 통해 19개 지점으로 확충되었고, 3년 내 50개의 지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한국의 DMZ 평화 생명의 땅 최병관 사진전’ 개막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6월 24일(월) 오후 6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DMZ 평화 생명의 땅 최병관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문화원 2019 국가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진전은 한국 비무장지대의 비경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외교부, 국방부, 내무부와 공공사업부,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한인니친선협회장, 인

도네시아전문사진작가협회(APFI) 회장,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미국, 미얀마 등 주재국 대사,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및 △한국유관기관장 등 약 250명의 귀빈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연합뉴스 TV에서 이번 전시 취재차 취재단이 파견되었고, The Jakarta Post, Kompas, SCTV, RCTI, Metro TV 등을 비롯한 주재국 유력 언론매체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의 상징 DMZ’에 대한 취재진들의 열기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한국대

사는 환영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이번 DMZ 사진전을 통해 한-인니 국민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염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이어 최병관 작가는 “DMZ을 출입하며 전쟁의 잔해물이 널려있는 비무장지대가 다양한 동식물이 태어나는 생명의 땅이 된 것을 목격했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더 널리 확산해나가고 싶다”고 전시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총국장과 외교부 총국장 축사와 리본커팅에 이어 최병관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관람 시간이 마련되었고, 최병관 작가는 사진을 통해 그 날의 경험담과 사진철학 등을 전하면서 귀빈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립국악원 위희경시의 가야금병창 무대와 교향악단의 연주가 흐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귀빈들의 네테

워킹 시간이 이어지며 개막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전시회는 아세안 수장국이자 우리 정부 핵심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 보다 다각화된 한류 소개하는 한-인니 문화교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DMZ 평화 생명의 땅 최병관 사진전’은

이달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 간 전시될 예정이다.

###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특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항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 3002 9090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MOVE 프로그램 소개

###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 34세이하 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기업



구직자



###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

## <팔아야 귀국>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지 자카르타에서 팝업스토어 오픈!

‘팔아야 귀국’ 팝업스토어가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지 자카르타에 오픈한다. 베트남 호찌민에 열었던 팝업스토어는 영업을 끝내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무대를 옮겨 새로이 한류상품 판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이름도 ‘팔아야 귀국 in 인도네시아’로 변경된다.

인도네시아 편에서는 기존 베트남

편 출연자였던 추성훈과 허영지를 대신해 파이터 김동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나르샤, 블랙비 유권이 투입돼 프로그램에 또 다른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팔아야 귀국 in 인도네시아’ 편에서는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생소한 문화와 현지인들의 삶을 팔아야 귀국 멤버들이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 인구 4위의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한류시장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리라 기대된다.

새 멤버를 영입해 인도네시아 중심지 자카르타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한 ‘팔아야 귀국 in 인도네시아’ 편은 7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채널A에서 첫 방송된다.

생소한 문화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영업 에피소드 ‘팔아야 귀국 in 인도네시아’ 편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한국서 공부한 인도네시아 과학자들 연합동문회 발족

UST·KAIST·UNIST 출신 80여 명 15일 자카르타서 한국에서 공부한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이 자카르타 현지에서 연합동문회를 결성했다.

17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따르면 UST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위를 받거나 연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동문 80여 명이 ‘KOREA S&T 연합동문회’를 결성하고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연합동문회 결성은 지난해 11월 UST·KAIST·GIST(광주과학기술원) 출신 베트남 연합동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UST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해 동문 협력이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문이 출신 대학을 넘어 ‘한국’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한국과 모국 간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UST에서 학위를 받은 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까이틀 후다야 박사는 발족식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위 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동문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 반갑다”며 “앞으로 협력을



▲ [자료사진] 월드옥타 차세대글로벌스쿨 모국방문교육 수료식 2018년 10월 29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 제16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수료식에서 박기출 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단, 참가 차세대회원, 대륙별 차세대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자”고 다짐했다.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 광고주를 모십니다

금번 땅그랑반튼 한인회에서 땅그랑반튼에 소재하는 한인기업,업소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한인업체간 상생과 정보공유, 재난,재해 및 위급한 사태 발생시 빠른대응과 지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홍보, 그리고 땅그랑반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소속감 고취, 이슈와 정보에 관한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에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습니다. 금번 발행하는 디렉토리는 한인기업 모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므로 광고의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최적의 매체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내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전화 주시면 상담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사양

- 1, 약 400페이지 FULL COLOR
- 2, 발행부수 : 2,000부(초판발행)
- 3, 배포: 땅그랑, 반튼주내  
한인기업 모두 무상배포,  
인도네시아 한국 관공서, 기관외
- 4, 발행 예상일자 : 2019년 10월경

### 광고 문의 및 접수

전화 : 0858 9060 0962 / 0896 3033 4662  
021 5579 6565  
이메일 : silkroad.indonesia@yahoo.co.id  
kakao talk : silkroad2011

QR코드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표지디자인>